

지진대비한 석축·다양한 식생 ‘불국’의 지혜와 자비



(105) 토함산 불국사



지구물리학에서는 단층운동으로 높아진 지대를 '지루(地壘)'라 하고, 계속처럼 낮아진 지대를 '지구대(地溝帶)' 또는 '구조곡(構造谷)'이라고 한다. 신라인들이 도읍을 정한 경주는 형산강 구조곡이 만든 분지이며, 동해바다를 굽어보는 토함산은 형산강지루가 만든 산이다.

일찍이 신라는 오악(五嶽)을 정하고 제사를 지내왔다. 오악은 신라 변방의 외산으로, 동쪽의 토함산(吐含山)을 비롯하여 서-계룡산, 남-지리산, 북-태백산, 중앙-부악(팔공산) 등을 가리켰다.

토함산은 겉보기에는 두툼한 육산 같아 보이지만, 불국사화강암류가 지나가는 공산이다. 백악기 중기 이후에 형성된 불국사화강암은 토함산을 비롯해 주로 남동부 경상분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신라의 화려한 석조미술을 비롯해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도 바로 이 불국사화강암이 탄생시킨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불국사는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 창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성이 재상이었던 만큼, 개인적 염원을 넘어 신라의 삼남통일업무를 대외에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불국사라는 이름에서부터 그런 여운이 묻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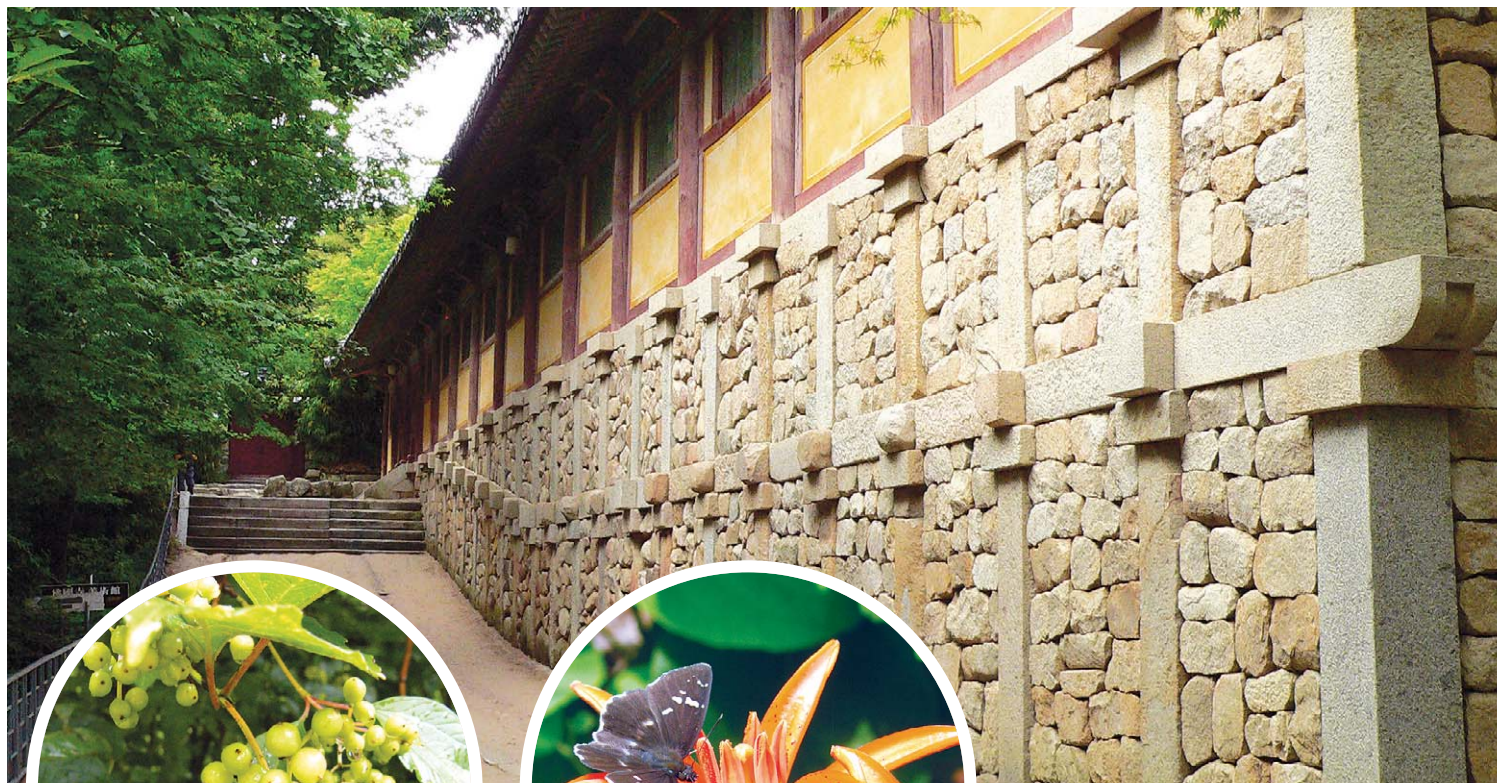
전나무와 히말라야 삼나무가 등성등성한 일주문을 들어서면 좌우에 잘 가꾼 화단과 해탈교 건너 커다란 연못이 있다. 토함산 계곡물을 가두어 만든 연못 안에 인공섬을 띄우고 비단잉어를 풀었다. 연못의 녹조와 붉은귀거북은 육의 티이다.

전문가들은 경주 일대를 활성단층 지대로 진단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혜공왕 때인 779년에 '땅이 흔들리고 민가가 무너져 죽은 자가 100여명이나 됐다'는 지진피해가 나온다. 불국사 창건 무렵의 일이다.

해탈교를 건너 경내에 들어서면 높고 아름다운 대석단이 다가선다. 불국사 석단이 다른 어느 절의 석단과 다른 것은 이 단층활동에 대비한 내진(耐震)공법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석대 사이에 틈을 두어 지진에 너지를 흡수하도록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랭이 기법이나 석단에 뛰어난 돌기둥도 역시 내진 장치이다. 자연과 지혜로운 인간의 아름다움 만남이다.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창건 당시 석단 앞뜰에는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친 영지(影池)가 있었다. 조선 말 초의 선사 시에도 연지를 묘사한 귀절이 있다. 수원은 대웅전 뒤 무설전 샘물과 계곡수라고 한다.

대웅전 마당에 서면 동쪽 회랑 너머로 장승들이 나한들처럼 몸집 좋게 줄지어 서 있다. 경주 일대가 못생긴 안강정 소나무 지역이지만, 이 장승들을 보면



불국사 회랑 내진 석축(위), 백당나무 열매(왼쪽), 하늘 말나리와 왕지팔랑나비(오른쪽).

선조 지혜와 자연 어우러진 사찰건축 '백미' 불국사, 노거수 일련번호 붙여 세심한 관리

본래부터 토함산 소나무들이 그렇게 병약하지는 않았음을 증언해준다.

무설전 뒤로는 관음전-지장전-비로전-나한전 영역이다. 관음보살의 여성적 이미지에 맞게 관음전 마당 주위는 다른 전각과 달리 배롱, 모과, 목련, 백미 등 꽃나무로 조경했다. 관음전과 이웃한 비로전에도 철쭉, 연산홍, 백당나무, 살구나무 등 꽃나무로 장엄했다.

극락전 한편 뒤에 나무로 세진 황금빛 돼지상이 있다. 길이 50cm 가량의 통나무로 조각한 이 돼지상은 입가에 송곳처럼 생긴 흰색 이가 나타나 있어서 야생 멧돼지로 보인다. 십이지에서 돼지는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돼지상은 화재를 막기 위한 벽사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극락전 뒤 십터 나무 아래 노릇들이 줄지어있다. 무설전 뒤쪽에서 밧굴했다는 노릇들은 뒷일을 볼 때 양쪽 발을 올려놓는 돌이다. 그 옆에는 크기가 작은 노릇들도 놓여 있다. 요즘의 수세시 변기처럼 물을 사용한

여 배설물을 씻어낼 수 있도록 배출구가 뒤로 나왔다. 경내 승방인 정혜로 지역은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비교적 양명한 지역이라 나비류와 잠자리류 등 곤충들이 다양하게 관찰된다. 제비나비, 표범나비, 신선나비, 대만흰나비, 왕지팔랑나비, 등줄박각시, 긴꼬리산누에나방, 대륙잠자리, 배치레잠자리, 마야치레잠자리, 물잠자리.

제비나비는 1년에 두 차례 봄과 여름에 나타난다. 가끔 물이 축축한 땅에 내려앉아 물을 마시거나 미네랄 등을 섭취한다. 검은 날개에는 녹색과 청색의 무늬가 있다. 갈색 광택이 나는 왕귀뚜라미는 낮에는 크고 단단한 뒷다리로 주로 뛰어다니다가 저녁 무렵이면 기왓장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구애의 울음소리를 낸다.

토함산은 국립공원이지만, 오래 전부터 관광개발이 이뤄져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야생종은 보려고 바 없다. 정혜로를 비롯 불국사 주변에서는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찌르레기, 검은등매꾸기, 꼬꼬리, 빠꾸

기, 한배지빠귀, 호랑지빠귀 등 여름철새들이 관찰됐다. 전통사찰은 전통식생일 때 그 가치가 돋보인다.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노거수들이 처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노거수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식재된 조경수로로는 쉬나무, 아왜나무, 팽나무, 배롱나무 등등 주로 고유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한전 뒤안에 있는 키 큰 회화나무에 하얀 꽃들이 만발하다. 조개사 마당에도 우뚝한 회화나무는 한-중-일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나무이다. 나무 모양이 궁글고 온화하여 선비들이 애호했지만, 사찰 조경수로도 좋다.

천왕문 앞 화단에 심어진 쉬나무는 주로 마을 야산에 자라는 낙엽활엽수이다. 한자로 '조선오수유(朝鮮鮮莠莠)'라고 한다. 중국 문헌에 경주 지방에서 약목으로 재배한다고 되어 있다.

무설전 서북쪽 화단에 심어진 아왜나무는 상록난대식물이지만, 바다가 가깝고 기온이 온화한 관계로 이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동백나무와 함께 사찰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데 적당하다.

경내를 돌아 일주문 밖으로 나오면 석굴암으로 이어진 산행길이 나온다. 오르막길이라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이지만, 외길이라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석굴암으로 나 있는 산행길은 인간의 간섭이 심하고 그들이 쳐서 많은 꽃들은 볼 수 없지만,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여름꽃들을 볼 수 있다. 하늘말나리, 타래난초, 야생도라지, 머느리밭풀꽃, 까치수영, 꽃머느리밭풀, 노루오줌 등이 꽃을 피웠다.

하늘말나리는 산기슭이나 낙엽수림 주변에 낙엽

이 쌓인 반그늘에서 주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키가 커서 '말' 자가 붙었고, 진홍색 꽃잎이 하늘을 향해 벌어진다고 하여 '하늘' 자가 붙었다.

타래난초는 곧게 선 줄기에 작고 양중맞은 꽃들이 타래 툇듯이 빙 둘러서 난다고 붙은 이름이다. 햇빛이 잘 드는 묘지 부근에서 자주 관찰된다.

도라지는 동아시아에서만 1종이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햇빛이 좋은 숲속 빈터나 무덤 주변에서 자란다. 사찰에서는 관상과 식용으로 예부터 즐겨 심어 왔으나, 근래에는 보기가 드물어졌다.

산행길은 토함산의 다양한 나무들을 볼 수 있는 숲속길이다. 토함산은 대부분이 소나무-리기다. 소나무-참나무림으로 덮여 있지만, 석굴암으로 가는 숲길 주변에는 주로 활엽수들이 많다.

좁게 잎나누는 잎이 깎듯처럼 생긴 키 작은 나무이다. 잎 뒷면 초분류처럼 보인다. 전국 각지에서 자라지만, 양지를 좋아해서 주로 등산로 주변에서 쉽게 관찰된다.

길을 내는 과정에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자연적으로 석축을 쌓았다. 석축의 돌틈은 다람쥐들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토함산은 큰 산줄기와 끊어져 있고, 오랫동안 관광지로 개발되어 큰 동물들은 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김대성이 젊은 날 한 때 이 산에서 곰 사냥을 하다가 불교에 귀의했다는 전설이 있다.

산행로는 석굴암 일주문 앞 주차장에서 끝난다. 주차장 언덕에 서면 발 아래로 먼 산들과 넓은 들이 전망 좋게 내려다보인다. 석굴암 가는 길은 흙길이라 걸어가기가 좋다. 산모퉁이를 굽이돌 때마다 새로운 경관을 만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토함산 지역은 경주 시내보다 강수량이 많고, 안개 일수도 많다. 석굴암 지역은 특히 바닷바람과 산바람이 직접 닿는 곳이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고려해 석굴암을 축조했을 것이다. 마치 고깔처럼 덮인 주실의 지붕도 그런 약조건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석굴암 경내의 조경은 수수한 편이다. 따로 심은 조경식물은 백당나무와 별개미취 정도이다. 백당나무는 꽃 모양이 불두화와 비슷하다. 다만 불두화는 수술이 없는 중성화(中性花)만 피우는데, 백당나무는 수술 있는 양성화도 함께 피운다. 꽃이 진 자리에 작고 파란 열매가 맺혔다.

별개미취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들국화이다. 공은 줄기에 피는 연지주색 꽃은 여름 끝에 피어 가을을 여는 꽃이다.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고, 뿌리 번식이 쉬워서 사찰 조경에 알맞다.

석굴암 본존불 마당 끝에 서면 겹겹이 쌓인 산들이 발 아래 내려다보인다.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안개(海霧)를 들이마시고 토해내는 것 같다고 하여 '토함산'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석굴암 위로 20분쯤 오르면 정상에 오르는 숲길이다. 숲길 초입은 조망이 좋지 않지만,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조망은 사리지고 역새들이 펼쳐져서 시야가 트인다. 멀리 낙동정맥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감포 앞 푸른바다가 보인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부산 대구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카이로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마자, 스포츠 맞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기간

- 2급과정 (1개월)
-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완성

장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전생 · 빙의 · 자기치면 · 치료치면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형교육 치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나를 찾는다

개강일 • 2008년 10월 1~ 10.5

교육기간 •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수성과정

교육대상 •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치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 자기치면 / 타인치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육임 우울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금연 빙의 / 전생 / 금주

교양대학 • 사주명리 / 침술 / 성명학 / 풍수지리 / 자미두수 육임 / 명리로 영가 찾는 법 / 구궁법

특기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초의 교육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수 있도록 책임 평생교육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대구연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